

WEBVTT

00:00:08.832 --> 00:00:11.858

여러분, 안녕하세요?
김종회입니다.

00:00:12.691 --> 00:00:20.292

이번 시간에는 박경리의 대하 장편
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00:00:31.451 --> 00:00:36.257

한국에서 글을 읽는 사람,
소설을 읽는 사람 가운데

00:00:36.282 --> 00:00:39.145

토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

00:00:40.831 --> 00:00:43.067

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.

00:00:43.441 --> 00:00:48.575

박경리의 토지를 연구하는
토지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

00:00:49.684 --> 00:00:53.884

제가 지금 현재 토지학회의
회장입니다.

00:00:55.400 --> 00:00:59.223

명함을 주고받았을 때 저에게

00:00:59.923 --> 00:01:02.128

아니, 부동산 쪽으로
공부를 하셨습니까?

00:01:02.153 --> 00:01:05.039

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.

00:01:05.886 --> 00:01:10.687

그래서 박경리 선생의 토지라는
작품을 연구하고

00:01:10.712 --> 00:01:13.125

박경리의 문학을 연구하는
모임이지요,

00:01:13.150 --> 00:01:17.812

이렇게 대답을 하면 상대방이
매우 머쓱해하는데

00:01:19.068 --> 00:01:23.093

그러라고 토지학회라는 이름을
붙인 건 물론 아니죠.

00:01:23.534 --> 00:01:25.666

토지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

00:01:25.691 --> 00:01:29.427

박경리의 토지학회,
박경리 토지학회 하지 않아도

00:01:29.594 --> 00:01:35.078
토지학회라고 해도 문학하는 사람들은
알아듣지 않겠는가?

00:01:35.103 --> 00:01:37.109
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.

00:01:38.025 --> 00:01:42.037
박경리의 토지는 1970년대부터
쓰이기 시작했죠.

00:01:42.062 --> 00:01:46.855
여러분, 70년대는 소설의 시대
또는 산문의 시대

00:01:46.880 --> 00:01:48.724
이렇게 불렀습니다.

00:01:48.749 --> 00:01:55.278
왜 그러냐 하면 전쟁으로부터,
6.25 동란 한국 전쟁.

00:01:55.303 --> 00:01:59.694
전쟁으로부터 한 세대가 경과하면서

00:02:00.412 --> 00:02:04.726
어린 시절에 6.25를
경험했던 작가들이

00:02:05.971 --> 00:02:11.187
스스로 겪었던 그 이야기를
소설로 쓰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.

00:02:11.609 --> 00:02:16.406
그래서 분단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
많은 분량으로

00:02:16.431 --> 00:02:20.996
그리고 높은 수준으로
산출되기 시작했습니다.

00:02:21.810 --> 00:02:26.426
거기에 1960년대부터 시작된
경제 개발이

00:02:26.451 --> 00:02:29.277
70년대에 들어오면서
성과를 내기 시작했고

00:02:29.302 --> 00:02:31.757
경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
될까요?

00:02:31.782 --> 00:02:36.367
이것은 산업화 시대로
진입하는 것을 말하고

00:02:36.664 --> 00:02:43.007
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가진 자와
그렇지 않은 자, 빈부의 격차.

00:02:43.346 --> 00:02:46.132
산업화 시대의 여러 문제점들이
드러나기 시작합니다.

00:02:46.157 --> 00:02:49.511
이것을 소설로 쓰기 시작한
작가들이 많았죠.

00:02:49.690 --> 00:02:53.264
그래서 분단 문제와
산업화 시대의 문제를

00:02:53.289 --> 00:02:59.395
소설로 쓰는 작가들이 많아지면서
1970년대가 소설이 흥왕한,

00:02:59.813 --> 00:03:03.605
소설이 풍성한 그런 시대가
되었다는 뜻입니다.

00:03:07.970 --> 00:03:13.671
70년대 문단에서 또 특이한 변화는

00:03:14.238 --> 00:03:18.246
과거에 단편이나 중편으로
쓰이던 소설들이

00:03:18.849 --> 00:03:24.166
장편 또는 대하 장편의 모습을 띠고
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

00:03:24.909 --> 00:03:27.673
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
알 수 있는

00:03:27.698 --> 00:03:30.527
한국 문학의 주요한 작품들.

00:03:31.106 --> 00:03:36.365
박경리의 토지를 비롯해서
이병주의 지리산, 황석영의 장길산,

00:03:36.627 --> 00:03:42.445
김주영의 객주, 조정래의 태백산맥,
문순태의 타오르는 강,

00:03:42.597 --> 00:03:47.809
박완서의 미망, 김성환의 임진왜란,
이문열의 변경

00:03:48.000 --> 00:03:53.754
또 그 무렵 비교적 젊은 작가
고원정의 빙벽 같은 이런 작품들이

00:03:54.074 --> 00:03:59.867
7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랜 발표
과정을 거쳐가기 시작합니다.

00:04:01.271 --> 00:04:05.240
이 소설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,
분량에 있어서

00:04:05.265 --> 00:04:09.042

지금까지 한국 현대 소설이
일찍이 경험하지 못한

00:04:09.225 --> 00:04:11.742

방대한 모습을 보입니다.

00:04:12.109 --> 00:04:14.570

그리고 대체로 많은 독자들을
끌어모음으로써

00:04:14.595 --> 00:04:16.898

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죠.

00:04:17.443 --> 00:04:22.351

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
소설 주제의 문제성을 생각한다면

00:04:22.670 --> 00:04:28.291

한국 소설 문단이 이런 작품들을
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

00:04:28.316 --> 00:04:33.846

그 관점과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
의미합니다.

00:04:36.410 --> 00:04:39.671

박경리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기로 하면

00:04:39.778 --> 00:04:43.203

이 작가는 인간의
존엄성이라고 하는 것

00:04:43.228 --> 00:04:49.205

또는 소외 문제 또 낭만적 사랑이나
생명 사상 같은

00:04:49.334 --> 00:04:52.247

이런 주제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

00:04:52.272 --> 00:04:57.344

그것은 이 작가가 가지고 있던
세계관의 요체로서

00:04:58.089 --> 00:05:03.257

일제 강점기에 성장해서
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체험한 상황

00:05:03.596 --> 00:05:08.859

그리고 이 작가가 타고난 기질적 속성
또 남다른 개인적 경험

00:05:08.884 --> 00:05:11.708

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.

00:05:12.588 --> 00:05:16.432

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
일찍이 눈떠 있었던 박경리는

00:05:16.457 --> 00:05:22.891

우리의 격동기 역사를 현장에서
체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,

00:05:22.916 --> 00:05:27.274

사랑에 대한 진지한 성찰
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썼고

00:05:27.299 --> 00:05:32.319

토지에서는 이것이 생명 사상이라고
하는 개념으로

00:05:32.344 --> 00:05:34.445

종합되어서 나타났습니다.

00:05:36.127 --> 00:05:38.773

토지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

00:05:38.798 --> 00:05:42.582

그중에서도
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희는

00:05:42.607 --> 00:05:45.789

자기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가
강조된 인물이고

00:05:45.814 --> 00:05:51.844

함안댁이나 복동네, 유인실 같은
이런 인물들도 유사합니다.

00:05:52.675 --> 00:05:56.041

이런 인물들을 통해서
박경리라고 하는 작가는

00:05:56.216 --> 00:06:00.416

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의지,

00:06:00.564 --> 00:06:04.029

이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
긍정적으로 그립니다.

00:06:04.600 --> 00:06:11.238

또한 이 작가는 현실화되지 못하는
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 속에서

00:06:13.123 --> 00:06:16.138

고독을 경험해야 하는 인간 군상

00:06:16.391 --> 00:06:20.591

그리고 그 고독과 소외를
극복하려고 하는 노력

00:06:21.365 --> 00:06:23.938

이런 행위를 통해서,
어떤 생각을 통해서

00:06:23.963 --> 00:06:26.703

그것을 추구해 가느냐 하는 것을
보여줍니다.

00:06:27.991 --> 00:06:32.936

박경리 문학의 정신적 기저는

인간의 존엄과 소외에 있고

00:06:33.628 --> 00:06:39.054
존엄을 지키고 소외를 해소해 보려고
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

00:06:39.332 --> 00:06:42.352
작가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

00:06:44.923 --> 00:06:51.182
이러한 의식들이 모든 살아 있는 것은
존엄하고 그래서 평등하다는

00:06:51.447 --> 00:06:54.451
생명 사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.

00:06:55.151 --> 00:07:03.448
토지는 1969년 9월 현대문학에
연재를 하기 시작했고

00:07:04.908 --> 00:07:10.070
69년에서부터 1994년까지
20세기 말,

00:07:10.524 --> 00:07:16.769
1994년 8월 문화일보의 연재가
끝날 때까지 무려 26년이라는

00:07:16.794 --> 00:07:19.177
긴 시간 동안 연재되었습니다.

00:07:19.795 --> 00:07:27.386
이런 장구한 집필 기간 그리고
원고지 4만여 장에 달하는

00:07:27.411 --> 00:07:30.615
그 분량의 외형만 보아도

00:07:30.718 --> 00:07:36.825
우리가 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
다 읽어 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

00:07:36.850 --> 00:07:42.608
이것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 또한 매우
난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00:07:43.448 --> 00:07:47.938
토지는 다양한 층위의 세계가
중층적인 이야기들로 짜여 있어요.

00:07:48.564 --> 00:07:53.735
그래서 부분, 부분 어떤 의미를
갖고 있기 때문에

00:07:53.760 --> 00:07:56.704
그것을 소홀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.

00:07:57.046 --> 00:08:04.487
그렇게 긴 시간의 배경 위에서
700여 명에 달하는 등장인물

00:08:05.108 --> 00:08:11.203
그리고 기존의 서사 관습,
기존의 이야기 구조에서 비껴 서 있는

00:08:11.228 --> 00:08:15.428
생명 사상을 중심으로 한
역동적인 서술의 방식 같은 것,

00:08:15.453 --> 00:08:19.653
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
하겠습니다.

00:08:21.194 --> 00:08:29.952
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
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

00:08:31.612 --> 00:08:36.491
격동의 역사 속에 한 양반 가문의
몰락과 전이 과정

00:08:36.516 --> 00:08:38.803
이것이 이 작품 속에는 나와 있죠.

00:08:40.532 --> 00:08:46.151
이 소설의 서사적 골격을 형성하는
그 이야기의 중심에는

00:08:48.370 --> 00:08:52.278
4대에 걸친 인물들이
중적으로 배치되고

00:08:52.303 --> 00:08:55.343
통시적으로 흐름을 따라
배치되어 있고

00:08:55.871 --> 00:09:00.790
그 주변에 인물들과 관련을
맺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

00:09:01.234 --> 00:09:08.338
횡적으로, 공시적으로 함께
그물망처럼 묶여 있습니다.

00:09:08.931 --> 00:09:16.346
그래서 이 중적인 흐름과 횡적인 연대
이런 소설적 배경을 통해서

00:09:16.371 --> 00:09:23.904
우리는 한 세기를 넘는 인간의 삶,
우리 민족의 삶.

00:09:24.027 --> 00:09:27.679
그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이
얼마나 소중한고

00:09:27.704 --> 00:09:32.465
생명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
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를

00:09:32.782 --> 00:09:35.114
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00:09:37.911 --> 00:09:44.753
이 소설은 그 공간적 무대가
처음은 경남 하동 평사리라고 하는

00:09:44.778 --> 00:09:52.010
정적인 공간에서 시작하지만
차츰 이야기는 북만주 간도,

00:09:53.342 --> 00:09:59.288
지금 이틀테면 중국의 길림성
지역이겠죠.

00:09:59.783 --> 00:10:04.045
확대되고 일본까지 이어지는,
서울과 동경으로 이어지는

00:10:04.070 --> 00:10:09.744
소설 무대의 변화를 통해서
그야말로 확장되어 가는데

00:10:09.769 --> 00:10:11.513
왜 이런 확장이 필요하느냐?

00:10:11.538 --> 00:10:17.517
시대의 변화를 보여주자면
과거와 같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

00:10:17.542 --> 00:10:21.742
이렇게 중국, 일본으로 확장되는
무대의 배경을

00:10:22.074 --> 00:10:25.608
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,
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

00:10:26.911 --> 00:10:31.111
토지의 시간적인 구성과
공간적인 구성은

00:10:31.825 --> 00:10:36.935
이렇게 변화의 축 또는 확대하는
과정을 유지하고 있지만

00:10:37.522 --> 00:10:44.158
그 속에 등장하는, 그 속에 명멸하는
인물들은 계층적 유별성에 따라서

00:10:44.183 --> 00:10:48.852
서로 밀접하게 상관되기도 하고
대응하기도 하고

00:10:49.069 --> 00:10:52.586
서로 파쇄되기도 합니다.

00:10:53.536 --> 00:10:58.882
이러한 행동은 사회적, 윤리적
가치 기준이 일정하게 적용되는

00:10:58.907 --> 00:11:01.535
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

하는 것,

00:11:01.560 --> 00:11:07.458

이것을 보면 이 작가가 처음부터
끝까지 이 작품을 통괄해서

00:11:08.046 --> 00:11:16.209

사상적 흐름을 유지하고서 작품을
쓰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00:11:17.381 --> 00:11:20.650

소설의 전반부는 모든 인물들이

00:11:20.675 --> 00:11:24.875

계층적 유별성에 의해서
그 존재가 규정되지만

00:11:26.287 --> 00:11:28.854

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
최참판댁.

00:11:28.879 --> 00:11:33.435

양반 가문의 몰락 과정과 함께
그와 같은 유별성이라고 하는 것이

00:11:33.460 --> 00:11:34.783

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.

00:11:34.808 --> 00:11:40.167

그러니까 과거의 양반 중심의 사회,
지역 향토 사회.

00:11:40.192 --> 00:11:44.158

그 사회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
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

00:11:44.183 --> 00:11:45.389

무너진다고 하는 것인데

00:11:45.414 --> 00:11:51.002

이것은 그 시대의 변화 또 사람들의
삶의 모습과

00:11:51.027 --> 00:11:53.689

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.

00:11:54.164 --> 00:12:00.851

소설이 중반을 지나가면서부터는
인물의 성격과 자체가

00:12:01.325 --> 00:12:05.237

전통적인 사회 제도 붕괴 이후에
나타날 수 있는

00:12:05.262 --> 00:12:08.185

거의 모든 인간에 대한 탐구를

00:12:08.908 --> 00:12:13.108

다채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을
볼 수 있습니다.

00:12:15.483 --> 00:12:19.646
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고
하는 얘기는

00:12:19.671 --> 00:12:24.014
지금까지 어린아이들에게까지
전이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

00:12:24.039 --> 00:12:25.611
이제 이것 좀 떨쳐버려야죠.

00:12:25.636 --> 00:12:29.381
맨날 그렇게 한만 생각하면서
살겠습니까?

00:12:29.406 --> 00:12:33.926
그렇지만 토지에 있어서는
이 인간 군상들 속에서

00:12:33.951 --> 00:12:37.112
한의 삭임이라든지 한의 풀림이라든지

00:12:37.414 --> 00:12:41.309
이런 한의 문제를 어떻게
보느냐 하는 시각들이 작동하고

00:12:41.587 --> 00:12:48.387
내용에 있어서는 생명 주의, 생존의
원리 또 연민의 사상, 상생의 사상

00:12:48.591 --> 00:12:53.998
이런 것들이 그 소설의 공간을
채우고 있습니다.

00:12:55.381 --> 00:13:01.751
다양한 작품 주제들 또 그렇게
다양한 인물들, 다양한 사건들

00:13:01.936 --> 00:13:07.974
이런 것들이 100년에 걸친
우리 민족의 삶을 장대한 드라마로,

00:13:07.999 --> 00:13:13.808
파노라마로 보여주는
그런 소설이 토지라고 하겠습니다.

00:13:14.604 --> 00:13:19.699
여러분, 이 토지와 같은
문학 작품을 통해서

00:13:19.724 --> 00:13:22.067
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?

00:13:22.092 --> 00:13:26.365
이렇게면 우리 민족이
어떤 역사 과정을

00:13:26.390 --> 00:13:30.822
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
볼 수 있는 거죠.

00:13:31.616 --> 00:13:32.986

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

00:13:33.011 --> 00:13:36.678

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
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

00:13:36.703 --> 00:13:38.900

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.

00:13:39.822 --> 00:13:44.822

지금 한국에는 박경리의 토지를
볼 수 있는 문학 공간이

00:13:44.847 --> 00:13:45.916

세 군데 있습니다.

00:13:45.941 --> 00:13:53.218

하나는 박경리 선생이 만년에
생활하던 원주의 토지문화관

00:13:53.375 --> 00:13:58.884

또 원주 시내에는 박경리 문학공원이
있기도 해요.

00:13:59.129 --> 00:14:00.525

그 원주 지역.

00:14:00.877 --> 00:14:05.547

그리고 경남 하동에 가면
악양 평사리에

00:14:05.909 --> 00:14:11.316

최참판댁이
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

00:14:11.800 --> 00:14:14.170

그리고 통영에 가면, 고향이죠.

00:14:14.195 --> 00:14:20.710

통영에 가면 박경리 문학관이 매우
큰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

00:14:21.337 --> 00:14:27.302

여러분, 박경리와 그의 소설 토지를
감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

00:14:27.424 --> 00:14:29.871

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

00:14:29.896 --> 00:14:35.277

원주, 하동, 통영을
한걸음으로 돌아보는

00:14:35.593 --> 00:14:40.295

그와 같은 문학 여행의 행복을
누리보시지 않겠습니까?

00:14:41.700 --> 00:14:46.072

박경리의 토지는 그렇게
우리 가운데에 있고 우리 곁에 있고

00:14:46.097 --> 00:14:50.297

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으로
생각됩니다.